WEBVTT

00:00:25.005 --> 00:00:27.730
-안녕하세요?
지식의 강주형입니다.

00:00:27.830 --> 00:00:31.064
웰다잉에 대해서 함께
알아가고 있는데요.

00:00:31.226 --> 00:00:35.446
아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
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.

00:00:35.608 --> 00:00:38.692
사실 내가 살고 있는
환경에서 죽음에 대한

00:00:38.792 --> 00:00:42.318
개인적 생각과 고민을
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

00:00:42.493 --> 00:00:46.170
기회가 없었기 때문이
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0:46.270 --> 00:00:49.511
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의
죽음관에 대한 이야기를

00:00:49.611 --> 00:00:53.084
나누어보기 위해서 최호철
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.

00:00:53.109 --> 00:00:53.745
안녕하세요?

00:00:53.770 --> 00:00:56.187
-안녕하세요?
최호철입니다.

00:00:56.362 --> 00:01:02.160
-옛날에는 생사와 관련된
학문이나 교양강좌가 없었잖아요.

00:01:02.185 --> 00:01:04.462
그래서 생각해 보면
과거 우리나라에도

00:01:04.562 --> 00:01:07.049
죽음관은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.

00:01:07.149 --> 00:01:08.318
-네, 맞습니다.

00:01:08.418 --> 00:01:12.221
대체적으로 우리나라
사람들은 죽음을 살아 있는

00:01:12.321 --> 00:01:16.078

모든 존재가 거치는 과정으로
이해하고 있기는 했지만

00:01:16.178 --> 00:01:19.803
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
여기기도 했습니다.

00:01:19.903 --> 00:01:23.923
우리나라 속담에도
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

00:01:24.023 --> 00:01:26.169
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.

00:01:26.269 --> 00:01:31.513
우리의 전통적인 죽음과는
고종명처럼 천수를 다해서

00:01:31.613 --> 00:01:35.029
고통 없이 잘 죽는 것을
복으로 보았습니다.

00:01:35.129 --> 00:01:39.628
죽음을 이야기하는 돌아가셨다는
표현은 이런 우리 민족의

00:01:39.728 --> 00:01:43.640
죽음관을 잘 드러낸 말이라고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1:43.740 --> 00:01:48.351
-그러면 과거 우리 선조들은
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이해했나요?

00:01:48.451 --> 00:01:52.237
-네, 웰다잉이라는 말은
없었지만 죽음을 대하는

00:01:52.405 --> 00:01:57.571
자세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
체득할 수 있었습니다.

00:01:57.671 --> 00:02:00.817
특히 강릉 지방에서
전해오는 상여 소리,

00:02:00.917 --> 00:02:04.393
천년 집을 하직하고
만년 집을 찾아가네.

00:02:04.493 --> 00:02:09.565
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
저승일세라는 소리꾼의 소리는

00:02:09.645 --> 00:02:14.266
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은
하나라는 생사일여 인식에

00:02:14.351 --> 00:02:18.169
이르는 것으로 왔던 것으로
다시 돌아간다는 우리 민족의

00:02:18.322 --> 00:02:22.258
죽음의 이해 방식과 맥을 같이
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2:22.358 --> 00:02:27.220
한국인의 죽음관의 저변에는
정신적, 문화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

00:02:27.320 --> 00:02:33.239
무속신앙에서 죽음을 바라보는
방식과 죽음과 관련된 예식,

00:02:33.339 --> 00:02:36.462
즉 굿을 통해서
이해할 수 있습니다.

00:02:36.562 --> 00:02:39.174
-그런데 요즘에는
이런 사상들의 영향이

00:02:39.274 --> 00:02:41.079
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

00:02:41.179 --> 00:02:43.907
바쁜 현대인의 삶에
맞게 죽음을 이해하는

00:02:44.053 --> 00:02:46.477
방식도 많이 달라졌다면서요.

00:02:46.577 --> 00:02:51.008
-사람들의 죽음에 대한
이해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

00:02:51.111 --> 00:02:52.899
변화하게 됩니다.

00:02:52.999 --> 00:02:56.300
이제 죽음도 관리할 수
있는 대상으로 여기는

00:02:56.400 --> 00:02:58.391
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.

00:02:58.491 --> 00:03:02.099
살려고 하면 더 살 수 있다는
이른바 죽음 관리가

00:03:02.199 --> 00:03:04.242
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3:04.342 --> 00:03:07.378
이렇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결정도

00:03:07.478 --> 00:03:10.323
이른바 민주화 시대에
접어들게 됩니다.

00:03:10.423 --> 00:03:17.102
의사 또 가족, 보호자,

법률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의

00:03:17.202 --> 00:03:23.549
논의를 거쳐서 죽음 여부를 판별하고
죽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
00:03:24.309 --> 00:03:29.725
-과거에는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
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

00:03:29.825 --> 00:03:34.051
죽음을 직접 배웠다면
요즘에는 언론을 통한

00:03:34.151 --> 00:03:36.610
죽음의 간접 경험도
많아지지 않았습니까?

00:03:36.710 --> 00:03:42.924
-네, 언론 매체의 뉴스는 날마다
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한

00:03:43.024 --> 00:03:48.046
죽음을 보도하지만 그들의 죽음,
타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에

00:03:48.146 --> 00:03:51.091
그다지 깊게 고민하지
않고 있습니다.

00:03:51.191 --> 00:03:53.962
특별한 느낌을 주지
못하고 있기도 하고요.

00:03:54.062 --> 00:03:58.350
피하고 싶고 두려운 죽음은
오직 나의 죽음뿐인 것으로

00:03:58.450 --> 00:04:02.252
사회 분위기가 그렇게
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.

00:04:02.352 --> 00:04:06.625
죽음이 물화되고 양화되는
조금은 씁쓸한 모습이

00:04:06.725 --> 00:04:09.866
두드러지는 요즘의 시대가
아닌가 싶습니다.

00:04:09.923 --> 00:04:11.553
-네,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

00:04:11.653 --> 00:04:14.723
그리고 생활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
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

00:04:14.843 --> 00:04:19.248
아무래도 적다 보니까
종교를 통한 죽음의 생각을

00:04:19.422 --> 00:04:21.884
정리하는 분들도
많이 있는 것 같아요.

00:04:22.708 --> 00:04:26.012
-뚜렷한 유형을 드러내는
대표적인 한국 종교인

00:04:26.179 --> 00:04:30.952
무교, 불교, 유교,
그리스도교, 그리스도교는

00:04:31.014 --> 00:04:33.901
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것이죠.

00:04:34.001 --> 00:04:38.101
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인의
죽음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4:39.102 --> 00:04:43.081
-각 종교별로 죽음을 대하는
태도도 참 다르지 않을까라는

00:04:43.181 --> 00:04:46.333
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
사람들은 각 종교에서

00:04:46.433 --> 00:04:49.160
어떤 영향을 받아왔을까요?

00:04:49.260 --> 00:04:51.370
-먼저 무속신앙이 있습니다.

00:04:51.470 --> 00:04:55.648
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
모든 길흉화복의 원인을

00:04:55.748 --> 00:04:59.427
조상신이나 토속신과의
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.

00:04:59.527 --> 00:05:04.349
굿은 죽은 원혼이 저승에서
안식을 누리도록 안내하고

00:05:04.524 --> 00:05:08.744
산 사람들이 원혼의
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

00:05:08.844 --> 00:05:12.995
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
기원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.

00:05:13.095 --> 00:05:16.220
무속은 죽음 자체를
부정하거나 기피하지 않는

00:05:16.320 --> 00:05:21.683
자연주의적 죽음관을 취하는
한편 사자와 생자 사이의

00:05:21.844 --> 00:05:25.987
화해를 주도하면서 오랜 세월에
걸쳐 한국인의 정서에

00:05:26.103 --> 00:05:29.206
많은 영향을 미쳐온
민간 신앙입니다.

00:05:29.306 --> 00:05:32.048
-그렇다면 한국인에게
영향을 준 종교

00:05:32.176 --> 00:05:34.077
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.

00:05:34.177 --> 00:05:37.157
-무속신앙뿐만 아니고
오랜 전통의 불교는

00:05:37.257 --> 00:05:39.859
우리에게 두 가지 죽음의
이해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.

00:05:39.959 --> 00:05:42.206
그 첫째는 윤회 사상입니다.

00:05:42.306 --> 00:05:46.256
사람이 죽은 다음 다시
태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

00:05:46.356 --> 00:05:51.086
현세의 삶이 원인이 되고 이어진
삶이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.

00:05:51.186 --> 00:05:55.199
또 하나는 윤회와는 다른
생과 사를 같이 보는

00:05:55.299 --> 00:05:57.598
생사일여의 인식이 있습니다.

00:05:57.698 --> 00:06:00.342
인과응보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서

00:06:00.442 --> 00:06:03.449
삶과 죽음을 아울러
이해하고 있습니다.

00:06:03.549 --> 00:06:06.451
또 우리 선조들이 많은 영향을
받았던 유교가 있죠.

00:06:06.619 --> 00:06:10.715
유교는 죽음에 대해 분명한
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
00:06:10.815 --> 00:06:14.383
논어 선진 편에서 제자
계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

00:06:14.560 --> 00:06:18.555

여쭙겠습니다, 하니까 공자님이
이렇게 말씀하십니다.

00:06:18.655 --> 00:06:23.504
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
알 수 있으랴, 라고 하였는데요.

00:06:23.604 --> 00:06:27.726
공자의 이 말씀은 삶을 제대로
알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

00:06:27.837 --> 00:06:31.848
자연히 알게 되리라는
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

00:06:31.948 --> 00:06:36.035
유교는 의례를 통해서
죽음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00:06:36.135 --> 00:06:38.431
대표적 의례인 관혼상제 중에서

00:06:38.549 --> 00:06:41.467
특히 제사를 통해서
드러내고 있습니다.

00:06:41.567 --> 00:06:45.523
망자는 제사를 통해서
삶의 현실에 참여하고

00:06:45.623 --> 00:06:51.480
생자는 이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과
삶을 공유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.

00:06:51.580 --> 00:06:55.644
이러한 유교의 죽음 이해는
조선조 500년 동안

00:06:55.744 --> 00:06:59.678
우리의 죽음관을 깊게
치세해오면서 지금 한국사의

00:06:59.853 --> 00:07:03.036
장례 문화에도 큰 영향을
주고 있습니다.

00:07:03.136 --> 00:07:07.080
-불교와 유교 정말 많은
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

00:07:07.180 --> 00:07:09.880
그런데 이런 동양의
종교나 사상뿐만 아니라

00:07:09.980 --> 00:07:13.987
기독교나 천주교를 통해서도
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.

00:07:14.282 --> 00:07:15.542
-네, 그렇습니다.

00:07:15.642 --> 00:07:18.759
기독교에서의 죽음관은
다시 되돌릴 수 없는

00:07:18.784 --> 00:07:21.803
종말이 아니라 새 삶의
시작으로 봅니다.

00:07:21.903 --> 00:07:25.157
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,
이렇게 보는 것이죠.

00:07:25.257 --> 00:07:29.843
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
죽었지만 부활한 것처럼

00:07:29.943 --> 00:07:33.432
믿음이 깊은 자들은
사후 부활을 통해서

00:07:33.532 --> 00:07:37.111
앞서 죽은 사람들과
만나게 되고 또 다 함께

00:07:37.278 --> 00:07:40.944
하나님의 사랑 안에서
영원히 살리라는 믿음이

00:07:41.044 --> 00:07:43.702
기독교 신앙의 근저에 있습니다.

00:07:43.802 --> 00:07:48.942
-그런데 특히나 이야기해볼 게
장례 문화가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요.

00:07:49.307 --> 00:07:50.745
-네, 그렇죠.

00:07:50.853 --> 00:07:54.173
우리나라 장례 문화는
과거 수백 년간

00:07:54.273 --> 00:07:57.652
유교의 효를 바탕으로
성립되어 왔습니다.

00:07:57.770 --> 00:08:01.733
그런데 최근 급변하는
사회 속에서 장례 문화가

00:08:01.833 --> 00:08:06.104
세속화되어 버리고 비현실적인
허례허식, 상업화

00:08:06.204 --> 00:08:09.826
그리고 고급화가
심화되는가 하면 현대인들이

00:08:09.943 --> 00:08:13.419
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
이해되지도 않는 여러 의식과

00:08:13.607 --> 00:08:17.602
절차가 끼어들어서 우리를
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

00:08:17.702 --> 00:08:22.700
가정과 사회, 국가에 큰 경제적인
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.

00:08:22.800 --> 00:08:27.665
-그래서 그런지 이런 복잡한
장례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한다,

00:08:27.765 --> 00:08:29.809
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?

00:08:29.909 --> 00:08:36.459
-네,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
사망자 수가 급증해서

00:08:36.559 --> 00:08:40.699
이에 따른 경제적, 사회적
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

00:08:40.799 --> 00:08:46.829
장례 의식과 절차, 매장, 화장
그리고 유골 처리 등을 위한

00:08:46.929 --> 00:08:50.268
제반 시설이 절대적으로
부족한 실정이고요.

00:08:50.368 --> 00:08:54.622
이를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
비용은 앞으로 국가나 사회

00:08:54.722 --> 00:08:57.562
그리고 가족 등이
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

00:08:57.662 --> 00:09:00.801
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00:09:00.901 --> 00:09:05.792
또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
가족 구조가 핵가족에서 소핵가족으로

00:09:05.892 --> 00:09:09.536
또 나아가서 1인 가구로
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.

00:09:09.636 --> 00:09:13.629
젊은 세대들의 현실적이고
합리적인 사고로는

00:09:13.729 --> 00:09:18.637
현 장례 문화를 그대로 받아
유지,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

00:09:18.803 --> 00:09:20.009
의구심이 듭니다.

00:09:20.089 --> 00:09:22.697
-네, 맞습니다.
많은 분이 공감할 것 같아요.

00:09:22.766 --> 00:09:26.815
-이제 우리는 이러한
상황에서 기존의 장례 문화와

00:09:26.915 --> 00:09:31.837
장례 의식 및 장례 절차 등을
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고

00:09:31.937 --> 00:09:36.516
이를 현실성과 타당성에 바탕을
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

00:09:36.616 --> 00:09:40.651
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
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

00:09:40.751 --> 00:09:45.031
-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
간소하고 또 검소하고

00:09:45.131 --> 00:09:49.836
합리적인 장례 문화에 대해서
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?

00:09:49.936 --> 00:09:52.514
-네, 그래서 합리적인
장례 문화에 대해서

00:09:52.614 --> 00:09:55.709
간략하게 제시해 보려 하는데요.

00:09:55.809 --> 00:10:01.222
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
부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.

00:10:01.711 --> 00:10:07.307
부고는 불특정 다수에게
보낼 것이 아니라 꼭 알려야만 할

00:10:07.407 --> 00:10:11.422
가까운 가족, 친지에게만
알리는 것이 어떻겠는지요?

00:10:11.522 --> 00:10:14.213
그것도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고요.

00:10:14.313 --> 00:10:18.700
장일은 꼭 3일장,
5일장이어야 하는가?

00:10:18.800 --> 00:10:23.462
장일의 결정은 1934년
일제시대 때

00:10:23.595 --> 00:10:27.588
조선총독부령으로 3일장으로

강제된 것입니다.

00:10:27.688 --> 00:10:31.549
우리나라의 전통 장일은
3년상이었습니다.

00:10:31.649 --> 00:10:32.798
-정말요?

00:10:32.898 --> 00:10:36.635
-네, 초상, 소상, 대상
이렇게 3년상을 지냈는데

00:10:36.804 --> 00:10:40.400
일제강점기 시대에
3일장으로 강제되어서

00:10:40.500 --> 00:10:43.911
3일장이 우리의 전통 장일인 줄
많이 알고 있습니다.

00:10:44.011 --> 00:10:48.652
1~2일장을 해도 전혀 장례를
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

00:10:48.752 --> 00:10:52.399
특히 장례 비용이 장일이
길고 짧음에 따라서

00:10:52.540 --> 00:10:56.607
장례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
3일장, 5일장을

00:10:56.707 --> 00:10:58.886
굳이 고집해야 하겠는가
하는 생각입니다.

00:10:58.986 --> 00:11:02.293
그다음에 장례의식에 대해서
말씀드립니다.

00:11:02.393 --> 00:11:06.116
장례의식에서 조화와
부의금은 받지 말고

00:11:06.216 --> 00:11:10.089
음식 대접은 지금까지는
한식으로 차렸는데

00:11:10.189 --> 00:11:14.048
간단한 다과를 대접하면
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.

00:11:14.148 --> 00:11:18.121
제단 장식도 꽃 장식은
간소하게 하고

00:11:18.221 --> 00:11:22.499
상복은 상장과 리본을
꼭 달아야 하겠는가.

00:11:22.599 --> 00:11:26.116
그래서 검은색이나 흰색으로
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이

00:11:26.216 --> 00:11:28.052
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

00:11:28.152 --> 00:11:34.102
그리고 염습은 말 그대로
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

00:11:34.202 --> 00:11:36.740
옷을 입히는 과정을
염습이라고 하는데

00:11:36.840 --> 00:11:43.387
우리가 염습하는 과정에서
꼭 삼베 수의로 꽁꽁 묶어서

00:11:43.487 --> 00:11:48.273
이렇게 염을 하는데 꽁꽁
묶어서 할 것인가?

00:11:48.373 --> 00:11:51.663
아니면 자연스럽게 평상시에
내가 입던 옷 그대로

00:11:51.763 --> 00:11:55.294
깨끗한 옷으로 이렇게 장례를
치를 것인가 하는 것도

00:11:55.394 --> 00:11:57.105
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.

00:11:57.205 --> 00:12:00.283
그다음에 유골 처리 문제는 지금
화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

00:12:00.383 --> 00:12:06.532
거의 80%가 화장을 한다고
보는데 자연장을 많이 권합니다.

00:12:06.632 --> 00:12:11.118
화장을 해서 유골을 봉안당이나
봉안묘, 봉안탑에 모시는데

00:12:11.218 --> 00:12:13.339
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.

00:12:13.439 --> 00:12:17.263
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
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.

00:12:17.363 --> 00:12:23.160
그래서 자연장을 하되
잔디장이나 수목장

00:12:23.231 --> 00:12:26.852
또 산골 같은 이런 장례가 어떤지.

00:12:26.952 --> 00:12:31.330

사전 상례 의향서를
미리 작성해둬서 자녀들이

00:12:31.430 --> 00:12:35.984
내 장례식에 부담 없이
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

00:12:36.084 --> 00:12:39.606
부모가 그런 일을 먼저
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00:12:39.706 --> 00:12:40.925
-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

00:12:41.086 --> 00:12:42.183
-감사합니다.

00:12:44.707 --> 00:12:47.451
-우리가 항상 가지고
있던 고정관념을 버리면

00:12:47.551 --> 00:12:51.511
소중한 삶, 더욱더 건강하고
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

00:12:51.611 --> 00:12:53.789
기반을 마련할 수
있을 것 같습니다.

00:12:53.889 --> 00:12:56.913
저는 다음 강의 시간에
다시 돌아오겠습니다.

00:12:57.013 --> 00:12:59.515
함께해 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